

억울 경험의 과정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서 신 화 허 태 균 한 민[†]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

한국 사람들에게 억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또는 마음상태를 묘사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화병에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억울함을 느끼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는지, 억울하다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억울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2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인들이 억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상황과 억울을 경험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여 억울 경험의 구조와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억울함은 자신의 일을 주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여기에 부정적인 정서가 따름으로써 경험되는 보편적인 과정을 거쳐 발생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부당하다고 여기는지 그리고 억울을 어떻게 표현하며 해소하는지는 각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 억울 경험 과정에 연관된 문화적 맥락(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관,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 느슨한-경직된 체계특성, 권위주의 성향)이 억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억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억울, 근거이론,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 느슨한-경직된 체계, 권위주의

[†] 교신저자 : 한 민,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300-718)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 171, 서캠퍼스 교양관
Tel : rainmaster75@hanmail.net, E-mail : 042-630-9793

서론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동반한 자신의 고민이나 슬픔, 화를 표현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 또는 마음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억울(抑鬱)’은 한자 그대로 억눌리고 답답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람이 처한 사정이나 일 따위가 애매하거나 불공정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심리학적으로 억울은 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맥락에서 많이 나타나며, ‘분노 증후군(anger syndrome)’으로 분류되는(DSM-IV-TR, 2000) 한국의 문화적 증후군인 화병(火病, Hwa-Byung)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조흥진, 1991; 최상진, 이요행, 1995). 일단 화병이 발병하면 격렬한 분노가 수반되며, 초기에는 분노와 불안을 경험하고, 후기에는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민성길, 1989).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자율신경계와 심혈관계의 만성적 활성화로 인한 질환이 발생하게 되어(Alexander, 1939; Funkenstein, King, & Drolette, 1954; Spielberg, Crane, Kerns, Pellegrin, & Rickman, 1991), ‘몸의 열기’, ‘답답함’, ‘치밀어오름’, ‘덩어리 뭉침’ 등으로 요약되는 화병의 신체적 증상이 유발된다. 정신의학에서는 화병에서 경험되는 화를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내재화 된 불쾌한 감정적 흥분 상태’로 설명하고 있으며, 화병의 원인은 분노와 같은 감정의 억제 특히 억울로 인한 분노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민성길, 2009; 민성길, 김경희, 1998; 이시형, 1977; 이시형, 조소연, 이성희, 1989).

억울과 관련된 또 한 가지 맥락은 사회적으

로 뉴스화 된 사건들에서도 잘 드러나는 자살이다. 김효창(2010)은 서구사회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우리사회에서는 억울함과 화가 자살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올해만 해도 유명 야구해설가 H씨가 자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며 자살한 바 있고, 30대 초반 검사의 자살을 두고 부모와 동기들은 그의 자살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직장 내의 과도한 업무나 불합리한 상하관계로 인한 것인지를 밝혀달라는 탄원과 함께 그의 죽음이 억울하게 묻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치나 경제 스캔들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피의 혐의를 받은 후나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자살은 심리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해결 방법으로 한국인들은 억울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선택을 감행한다. 이처럼 억울에는 단지 분노나 답답함과 같은 개인내적인 측면의 감정상태만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나 심정, 상황 등을 알리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사회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의미나 기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억울은 대부분 개인내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되어오면서 정신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화병의 원인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며, 심리학에서도 최상진과 이요행(1995)이 화병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억울을 다룬 것이 유일한 연구이다.

심리학에서 정서는 발생적인 측면에서 신경생리학적인 기원을 갖기 때문에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문화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의 질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Kitayama & Markus, 1991a). 이 때 정서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정서경험의 신경생리학적인 과정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Russel, 1991), 정서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Mesquita & Walker, 2003). 정서는 언어를 통해 인식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정서 이해를 위해서는 특정 정서를 뜻하는 단어가 해당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서의 문화심리학적 연구에서는 해석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해석이라는 것은 특정 상황맥락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문화적 규칙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김정운, 2001; Mauro, Sato, & Tucker, 1992).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억울에는 개인내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 경험 과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억울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정서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부여한 의미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칙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억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억울을 경험하는 구조를 탐색함으로써 억울을 구성하는 보편적 정서경험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특정 경험을 억울하다고 해석하는 판단근거를 확인하여 억울 경험 과정에 연관된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억울 경험의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억울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은 억울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안의

모색을 가능 하게하여 한국인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억울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연구문제 2. 억울하다고 해석하는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억울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문화적 특성이 억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본 연구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위해 연구 1에서 억울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3을 논의하여 억울 경험과 관계된 문화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질적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논의에서 예상한 문화적 변인들이 억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 2를 진행하였다.

연구 1. 억울 경험 구조분석

연구 1은 억울 경험의 실질적 과정과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되었다. 비교문화심리학이 문화적 맥락을 제거한 상황에서 추상화 혹은 외부 변수화시킨 문화의 영향을 다룬다면, 문화심리학은 ‘문화적 마음’의 내용과 사고의 과정을 문화적 삶의 맥락 속에서 있는 그대로 ‘떠내며’, 이를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을 강조한다(최상진, 한규석, 1998). 연구 1은 억울이 단순한 정서의 명칭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구성된 정서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언제, 어떠한 경우에 억울

을 경험하며, 억울이라는 정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참여자를 모집하여 설문 일정을 잡은 후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44명(남성 12명, 여성 3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 12명(남자 3명, 여자 9명), 30대 17명(남자 4명, 여자 13명), 40대 12명(남자 4명, 여자 8명), 50대 3명(남자 1명, 여자 2명)이었다. 전체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4.97세($SD=8.34$)로 남성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5.5세($SD=8.75$), 여성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4.78세($SD=7.97$)였다.

개방형 설문

설문조사는 개방형 설문(open-ended question)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전에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설문내용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정도였으며, 개방형 설문문항은 억울을 경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감정 및 행동 등을 과정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신이 경험한 억울했던 일을 적어주세요.

②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에 어떤 기분을 느끼셨는지 적어주세요.

③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적어주세요.

④ 위 질문에서 대답했던 억울함이 해소되었습니까? 해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⑤ 가장 기억에 남는 억울했던 상황을 돌아켜봤을 때 억울하다고 판단한 기준을 적어주세요.

⑥ 누군가 당신에게 억울하다고 이야기 했던 일 중에 당신의 관점(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상대방은 어떤 이유로 억울하다고 했습니까?

⑦ 누군가 당신에게 억울하다고 이야기 했던 일 중에 당신의 관점(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당신은 왜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까?

분석방법 및 절차

근거이론 분석에 앞서 억울을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은 자료들을 의미와 내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공통 의미를 추출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억울을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문항은 한 사람에게 최대 3개씩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44명의 응답자에게서 총 96개의 응답이 도출되었다. 이 중 1개의 응답(특히 기억나지 않음)을 제외한 95개의 응답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분석의 전 과정은 박사 2인과 대학원생 2인의 토의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는 심리학 교수 1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이후 본 연구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심리학 전공의 대학원생 4인에게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분류한 범주에 적합한지 재분류하게 한 후, 일치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2차 토의과정을 거쳐 최종 범주를 확정하였다.

근거이론의 분석절차는 개방코딩과 축코딩, 그리고 선택코딩으로 이루어졌다. 개방코딩(open coding)이란 자료를 해체하여 비교, 검토를 통해 비슷한 특질을 가진 것들끼리 모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뜻한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개방코딩의 분석절차는 수집된 자료를 한 줄씩 분석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단어, 구절, 문장 등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줄 단위 분석’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추출된 개념들을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들끼리 분류하여 상위범주를 만들고, 이론적인 배경 및 원자료와의 지속적인 비교 검토를 거쳐 범주의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축 코딩(axial coding)이란 개방코딩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개방코딩에서 드러난 범주들 사이에 서로 의미 있는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축 코딩은 개방코딩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 다루고자하는 중심현상과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출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러한 조건들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 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선택코딩의 절차는 현상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능을 하는 핵심범주를 발견하는 ‘핵심범주의 발견’과, 축코딩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핵심범주에 다른 범주들을 연결시켜 서술적 문장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만드는 ‘이야기 윤곽’, 본격적으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하고 이를 진술하는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 등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결 과

억울 경험 분석

한국인들이 억울로 표현하는 일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억울했던 일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는 일일 때’ 억울했었다는 응답이 총 38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으로는 내가 한 일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내가 한일로 여겨지는 상황 16건(16.7%), 내 책임이 아닌 일을 내가 해야만 했던 상황 11건(11.5%), 내 잘못이 없는 일로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는 상황 10건(10.4%)이었다. 이 상황들은 공통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의 책임이 자신에게 전혀 있지 않을 때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나의 진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로 모두 22건(29.1%)이었고, 내가 한 말이나 의도가 곡해되는 상황 12건(12.5%), 나를 믿어주지 않거나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상황이 각각 8건(8.3%)씩이었다. 사람들은 나의 말이나

표 1. 억울을 경험하는 상황 (중복응답)

범주		빈도(%)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는 일일 때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가 한일로 여겨질 때	16	
	- 내가 한일이 아닌데 오해받은 경우	(16.7%)	
	- 내가 한 실수가 아닌데 내가 덮어쓸 때		
	내 책임이 아닌 일을 감당해야 할 때	11	37
	- 상관이 책임질 일을 나보고 책임지라고 했을 때	(11.5%)	(38.6%)
	- 차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냈어야 했을 때		
나의 진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타인으로 인해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10	
	- 차량 양도 후 선납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10.4%)	
	- 핸드폰 콜센터 직원의 잘못으로 요금제가 변경되었을 때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의 의도가 곡해될 때		
	- 상대방이 내 말을 오해해서 화를 낼 때	12	
	-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어려움에도 조정하고 결정해서 선택했는데 뒤에서 말이 많았을 때	(12.5%)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8	28
	- 내 말이 진실인데도 믿어주지 않을 때	(8.3%)	(29.1%)
	- 친구가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	8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려를 했는데 알아주지 못했을 때	(8.3%)	
	- 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 장래희망을 무시할 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 수업태도와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석이 많았던 동료보다 성 적이 좋지 않을 때	8	16
	- 열심히 17년을 일했는데 남은 건 허무한 마음뿐일 때	(8.3%)	(16.6%)
	부당한 일을 당할 때	8	
상대적인 불이익을 볼 때	- 학벌에 밀려 능력이 하향평가 될 때	(8.3%)	
	- 여자라고 대학가지 말고 공무원 시험보라고 하셨을 때		
	나만 불이익 당하는 것 같을 때		
	- 다 떠들었는데 나만 선생님께 걸렸을 때	6	
	-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거짓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주동자로 몰렸을 때	(6.3%)	
	어찌다 한 일로 지적당할 때		
	- 짐 앞이라 헬멧을 안 썼는데 과태료를 부과 당했을 때	4	14
	- 평소에 항상 일찍 출근하다 딱 한 번 지각했는데 사장님께 걸려서 항상 지각하는 사람으로 찍힌 것 같았을 때	(4.2%)	(14.7%)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일 때		
	-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찾고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가 죽을 돌봐야 했을 때	4	
	- 물건구입 후 바로 가격이 하락된 걸 봤을 때	(4.2%)	
합계		95(100%)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대방이 나의 의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발생한 일에 대해 억울해하였고, 자신의 마음이나 의도는 진실되고 가치있지만 상대방은 이것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로 16건(16.6%)이 있었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는 상황과 부당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각각 8건(8.3%)씩이었다. 이때의 부당함은 내가 한 최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며 특히 그 원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있을 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볼 때’로 14건(14.7%)이 나타났고, 나만 불이익 당하는 것 같은 상황 6건(6.3%), 어찌다 한 일로 지적당할 때 4건(4.3%),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4건(4.3%)이었다. 마지막 상황의 특징은 자신의 행동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거나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음이 명백함에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상황이라는데 있다.

억울 경험 구조 분석

억울 경험의 실질적 과정과 구조를 추출하기 위해 억울을 판단하는 근거, 당시의 기분과 행동, 억울의 해소에 대해 근거이론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 및 축코딩

개방코딩을 통해 71개의 개념, 30개의 하위 범주와 1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의 내용을 바탕으로 축코딩을 실시하였고, 개

방코딩 및 축코딩의 결과를 표 2-2부터 표 2-7까지 제시하였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왜 그 현상이 발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으로는 ‘주관적 부당성’이 도출되었다(표 2-2).

억울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부당성에 의해 인지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관적 생각(주관적 피해의식) 때문에 일차적으로 억울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를 인식하거나(피해인식)’, 피해를 준 ‘상대방의 일방적 태도’, 피해에 대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진실성’이 큰 경우이며, 자신이 입은 피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수용 불가능함) 더욱 억울함을 느낀다.

현상

현상(phenomena)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련의 작용/상호 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억울함을 느꼈을 때의 감정들이라 할 수 있다(표 2-3).

억울의 정서는 크게 ‘타인초점적 정서’와 ‘자기초점적 정서’로 나눌 수 있었다. 타인초점적 정서는 억울한 상황을 초래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그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서운함 등의 ‘관계적 정서’가 도출되었으며, 자기초점적 정서는 상황에 대한 자기관여적인 느낌으로 ‘당혹감’과 ‘불쾌감’, ‘무기력감’ 등으로 분류

표 2-2.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주관적 부당성	주관적 피해인식	피해인식	실질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함
			자존심에 상처를 입음
			나의 이미지가 실추됨
		상대의 일방적 태도	상대방이 내 진의를 오해함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음
			상대방이 서로 합의된 사항을 번복함
			같은 사안에 대한 서로의 기준이 다름
		자기 진실성	내 판단으로는 잘못하지 않았음
			내 말이 사실임
	수용 불가능함	수용 불가능함	납득할 수 없음
			받아들이기 힘들
			수용하기 어려움

표 2-3. 현상

현상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억울의 정서	타인초점적 정서	분노	화남
			적개심, 미움
		관계적 정서	배신감
			실망함
			서운함
		당혹감	당황, 황당함
			어이없음
	자기초점적 정서	무기력감	우울
			답답함
			절망감, 무기력함
		불쾌감	짜증
			속상함
			괴로움

되었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왜 현상이 지속되는가’에 대한 답이다.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들의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Strauss & Corbin, 1998).

억울하다는 느낌을 더 강화하는 맥락적 조건으로는 ‘자기 인식’과 ‘상황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우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는 자기가치감과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평소의 자기인식에 따라 억울한 감정이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자신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상황의 특성이 ‘예측 불가능’했거나 이미 벌어진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음’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주관적으로 인식된 부당한 경험에 대한 감정들을 조절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하며, 부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과 그 상황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한 ‘회피적 행동’과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표출적 행동’으로 나눌 수 있었다. 회피적 행동은 ‘회피’와 ‘관계 단절’로 구분되었으며, 표출적 행동은 ‘적극적 토로’와 ‘소극적 토로’로 나누어졌다.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주관적으로 인식된 부당함에서 기인한 감정들에 대처하는 전략들을 조절하는 조건들을 의미하며, ‘상황 및 관계 고려’와 ‘억울 해소의 동기’로 나타났다.

부당한 피해를 지각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행동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위와 맥락에 따

표 2-4.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	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기 인식	자기인식	자신에 대한 생각들	나라는 사람의 가치수준
			나의 의사소통 스타일
상황적 특성	예측 불가능	예기치 못함	관행 내지는 원칙이 아닌 상황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예외적)
		예측할 필요 없음	그럴 줄 몰랐음
	돌이킬 수 없음	결과를 바꿀 수 없음	그럴 필요가 없었음
			이미 발생한 일임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표 2-5. 작용/상호작용전략

작용/상호작용전략	범주	하위범주	개념
회피적 행동	회피	무행동	굳어버림(어쩔 줄 모름)
			가만히 듣고만 있음
	관계 단절	참음	화를 억누름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음
표출적 행동	적극적 토로	직접적 감정표출	이직 혹은 팀을 옮김
			상대방에게 화를 냄
			화를 내며 싸움
	소극적 토로	적극적 항변	울음
			상대방에게 직접 따짐
			강하게 내 주장을 알림
	소극적 토로	소극적 항변	한마디 하고 넘어감
		제3자에게 토로	지인이나 친구에게 하소연
			상담을 함

표 2-6.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	범주	하위범주	개념
상황 및 관계 고려	상황에 대한 고려	상황의 보편성 파악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가 파악함
			보편적이고 타당한 일인가 판단함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판단함
	관계에 대한 고려	상대방과의 관계 특성 파악	상대의 지위를 고려함
억울 해소의 동기	억울함을 풀려는 의지	진실의 회복	상대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려 함
		자기가치의 회복	나를 제대로 알고고자 함
			불필요한 오해나 무시를 피하고자 함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함

라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한국문화이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는 동기가 강하다면 표출적 행동(작용/상호작용전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도출된 억울 경험의 결과는 ‘관계의 변화’, ‘억울의 해결’ 및 ‘억울의 미해결’이었다(표 2-7).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부당한 피해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동기화되지만, 사회문화적 규범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중재적 조건; ‘상황 및 관계 고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동기가 강하다면(중재적 조건; ‘억울 해소의 동기’) 감정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작용/상호작용전략; ‘표출적 행동’), 많은 경우에는 참거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야 한다(작용/상호작용전략; ‘회피적 행동’). 억울경험의 결과는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전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

으로 예상된다.

축코딩의 결과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선택코딩

핵심범주 도출

중재조건의 ‘상황 및 관계 고려’가 억울 경험의 핵심범주로 도출되었다. 자신이 당한 부당한 피해가 ‘예측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커진다(맥락조건).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해소되어야 하는데 집단 주의적이고 관계주의적인 한국문화에서 분노의 표출은 보통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악해서 부당함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어떤 수준으로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장유유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사회문

표 2-7. 결과

결과	범주	하위범주	개념
관계의 변화	관계의 단절	상대방/ 상황을 회피함	상대방을 회피함
		관계를 끊음	상대방을 다시 보지 않음
	관계의 유지	명목상으로 관계를 유지함	겉으로만 좋은 관계를 유지함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함
억울의 해결	감정의 해소	감정의 해소	기분이 풀림
			기분이 후련해짐
			만족스러움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남
억울의 미해결	미해결된 감정	감정이 응어리짐	용서할 수 없음
		반추적 감정	상대방에 대한 원망
			다르게 행동 했어야한다는 후회
			우울, 슬픔, 좌절감, 자기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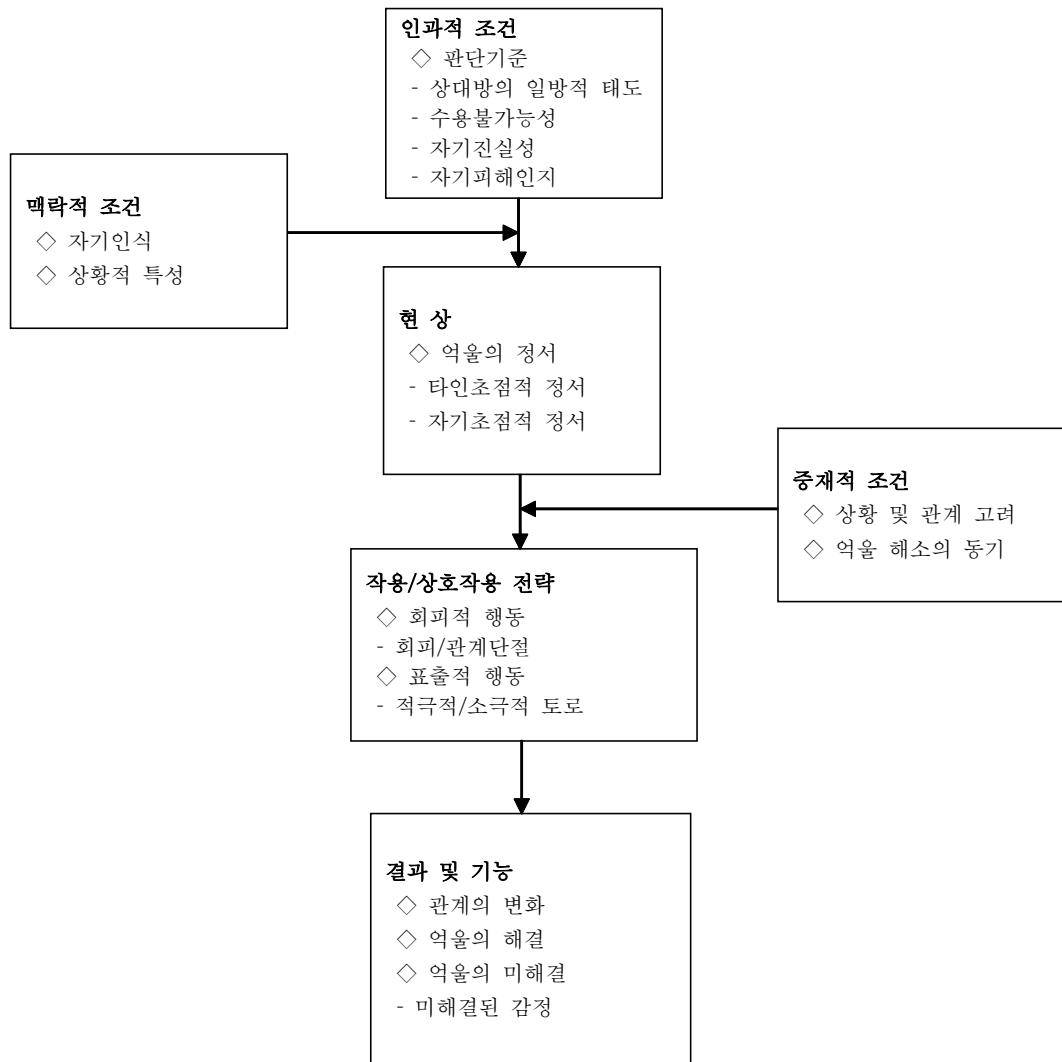


그림 1. 억울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화와 지위와 연령에 따라 수직적으로 구성되는 관계의 질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표출되기 어렵고, 또 표출되는 경우에도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함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분노, 화 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의 응어리로 남게 되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와, 어쩔 수 없었다는 무력감과 절망감, 할 수 있는 일이 없

다는 자조와 자괴가 뒤섞인 2차적 감정들이 억울함이라는 정서를 구성한다. 즉, 억울함을 단순히 주관적으로 인식한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분노를 표출하고 부당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오는 반추적이고 자기관여적인 2차적 정서가 포함된 정서로 볼 때,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부당함을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황과 관계에 대한

고려'가 전체적인 억울 경험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범주라 생각된다.

과정분석

과정(process)이란 한 가지 중심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 진행을 뜻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억울 관련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당성 인식 단계', '상황 파악 단계', '전략 선택 단계', '억울 증폭 단계'의 4 단계로 도출되었다.

부당성 인식 단계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한 사건으로 일차적인 부정 감정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자신이 겪은 사건의 부당성이 인식되면서 당혹감, 당황, 어이없음 등의 감정이 나타난다. 평소 애 가지고 있는 자기인식(높은 자기가치감 혹은 열등감)의 정도나 상대방의 태도 및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부정 감정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자기가치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권위주의적이거나 모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분노와 당혹감을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이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상황 파악 단계

일단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당혹감과 함께 분노, 화 등의 부정적 정서들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고맥락 관계주의 문화에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기 전에 자신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솟아오르는 부정적 감

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기에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감정 표현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등을 결정한다.

전략 선택 단계

상황 파악이 끝나면 감정표현의 수위와 취할 행동의 종류를 선택한다. 감정의 표현이 자유로운 상황일수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수록 격렬한 감정표현과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상적 맥락에서 개인의 감정표현의 범위는 제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정표현 및 억울 해소와 관련된 행동들은 상황의 종류와 상대방의 특성 및 관계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억울한 감정의 표현과 억울 해소의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감정표현 및 행동은 극도로 억제된다. 하지만,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정도가 너무 크다면 억울 해소의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다면 강한 감정표현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억울 증폭 단계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취한 행동전략이 상황 및 상대방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련의 결과로 이어지는 단계이다. 억울한 일을 일으킨 사람이 자신과 중요하지 않거나 소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하며 억울함을 회복하려 한다. 그러나 중요한, 그리고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게 한 경우는 감정의 표현이나 억울 해소 노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이러한 경우에 억울함은 더욱 증폭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데서오는 무기력감(답답함)이나 자괴감,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 등이 혼합된 이차적인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 한편, 억울함을 토로하고 해소하려는 행동을 보인 경우에도 이러한 무기력감과 배신감 등의 이차적 정서가 나타나는데 이는 억울의 해소와는 별개로 억울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의 증폭은 억울 경험의 중요한 특징이라 생각된다.

연구 1 논의

연구 1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 억울하며, 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억울이 발생하는 상황 및 억울을 경험하는 구조와 과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억울은 자신이 겪은 일이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는 일일 때', 내가 한 말이나 일의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한 일이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볼 때'의 상황에서 경험되었다. 이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첫째,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손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억울을 경험한다.

연구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억울함은 자신의 일을 주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여기에 부정적인 정서가 따름으로써 경험된다. 상대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부당할 때 혹은 피

할 수 있었던 손해를 당했을 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문화보편적인 현상이지만(Averill, 1983),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기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는 각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억울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가 화병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억울이 문화적으로 특수한 정서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과 유발된 정서의 해소에 문화적인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연구 2를 통해 문화적 특성이 억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 2. 문화적 특성이 억울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개인간의 친밀하고 사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는 관계주의적인 집단성이 강하여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기반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며, 사회적인 인정이나 원만한 인간관계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와 기대 수준이 높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자존감과 연관시켜 민감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관계 초점적인 집단주의 문화에 더하여 유교적인 권위의식에 기반 한 위계적 질서의 강조는 대인 관계 시 따라야할 규범들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존감에 손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관계 특성이나 상황적 맥락

을 고려하여 이를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결정하기도하며 관계를 해칠 위험성이 큰 부정적 정서는 표현이 금기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억울 경험의 구조 분석에서도 억울함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조건이 ‘자기에 대한 인식’과 ‘억울한 상황이 지닌 특성’으로 나타나 자기 가치감에 손상을 입거나 관행적으로 받아들일만하지 않은 일에는 억울함을 더 크게 경험함을 알 수 있었고, 억울함에 따르는 부정적인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동기’와 함께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들은 자신의 부당한 경험이나 부정적인 정서의 직접적인 표출이 사회문화적인 제약으로 어렵다고 여겨질 때 ‘억울’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인 차원의 해결이나 지지를 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질적 분석으로는 예측만 가능할 뿐 문화적인 요인과 억울 간의 명확한 관계를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 2를 진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들이 억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관’,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 ‘느슨한-경직된 체계특성’, ‘권위주의성향’을 억울을 예측하는 문화변인으로 선정하고 억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우선,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관’은 개인의 자기 인식 특성을 사회적 맥락과의 연결성-독자성 차원에 사회적 관계에서의 영향력 방향이라는 차원을 추가하여 세분화 한 문화

적 자기관(cultural self-construals)이다(이누미야, 한민, 이주희, 이다인, 김소혜, 2007). 자율성 자기(autonomous self)는 사회적 맥락과의 연결성 보다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자기관이며, 사회적 맥락과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자기관은 영향력 방향에 따라 주체성자기(subjective self)와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로 나뉜다. 즉, 주체성 자기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주도하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는 자기 지향적인 동기가 강하며 관계에 있어서도 윗사람(형, 선배, 부모, 리더)의 역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태도와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적인 통제력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대상성 자기는 자신을 사회적인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따라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보좌하고 싶다’ 등의 수동적인 동기가 강하며 관계에 있어서도 아랫사람(동생, 후배, 자녀, 부하)의 역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상대의 가치나 능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행동 특성이 있어 외부 보다는 자기 내부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경우에는 주체성 자기가 우세하고 일본인은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민, 이누미야, 김소혜, 장웨이, 2009).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냄으로써 자기를 인식하려는 동기가 강한 한국인들의 경우 부당한 일이나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자기관을 억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은 개인의 정서와 행동, 태도를 결정하는 가치의 개념으로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나라에 속한다. 집단주의는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보다는 집단에 두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 간의 협동과 조화를 중요시하여 자기희생이나 배려, 양보와 겸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경쟁이나 자기실현의 동기보다는 집단의 평화로운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참거나 받아들이려는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기주장을 선호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는 집단의 조화와 성취를 위해 개인적 충동을 억제하고 표현을 조절할 것을 주문한다(Triandis, 1990). 이러한 경향은 정서표현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개인주의 문화에서 정서표현은 개인의 내적가치의 표현으로 간주되어 분노나 자부심 등도 거리낌 없이 표현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동정심이나 공감 등 타인중심적 정서(other-oriented)의 표현은 권장되지만 자부심이나 분노 등의 자아중심적(self-oriented) 정서의 표현은 억제된다(Markus & Kitayama, 1991a, b).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집단의 조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의 정서표현은 암묵적이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인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표현의 억제를 장려한다(Wierzbicka,

1994).

개인이 내적으로 경험한 정서를 어떠한 표정이나 언어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guideline)은 일종의 규칙으로 문화적인 가치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규제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가치가 집단 내부의 단일성이나 규범의 준수와 연관되기는 하지만 집단의 조화가 반드시 규범이나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억울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고려하는 상황이나 관계적인 맥락은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규제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가치보다는 사회체계의 '느슨성과 경직성(looseness-tightness)'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사회 체계의 느슨성과 경직성 개념을 처음 제기한 Peltó(1968)에 따르면 느슨한 사회는 규범이 확일적이거나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일탈적인 행동이나 가치에 대해 관용적이고 형식이나 집단적 결속 등이 덜 발달한다. 반면 경직된 사회는 규범이 매우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 형식을 중시하고, 통제되어 있으며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규범에 맞지 않은 행동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한국인의 행동양식은 권위와 위계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전통이나 자기절제를 강조하는 유교적인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체계는 경직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느슨한-경직된 체계 특성을 억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선정하였고, 권위주의 성향은 억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에 거부감을 느끼기 보다는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되어 억울을 예측하는 문화적인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1의 질적 연구결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근거이론 분석 결과를 문항으로 구성하여 억울 경험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총 1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 부분적으로 응답하거나 억울한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한 4명의 응답자를 제외한 119명(남자: 59명, 여자: 6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2세(남자: 21.5세, 여자: 20.9세)였다.

측정도구

억울 척도

억울을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연구 1의 결과 중에서 ‘억울을 경험한 상황’ 범주를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총 4개의 범주에서 14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각 범주를 문항화하여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세부적인 문항은 결과에 제시하였다(표 3 참고).

문화 변인 척도

문화적 자기관(cultural self-construal). 문화적 자기관은 이누미야 외(2007)가 개발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체성 자

기(예, 나는 남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 대상성 자기(예, 나는 리더라기보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자율성 자기(예, 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각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주체성이 .83, 대상성이 .82, 자율성이 .83 이었다.

문화성향(cultural orientation).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Singelis(1994)의 상호독립적(independent)-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자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호독립적 자기는 개인주의 가치(예, 나는 항상 내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자 노력한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를 따르며, 상호의존적 자기의 집단주의 가치(예,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피하려 한다)를 따른다. 각 영역별로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개인주의 성향 .78, 집단주의 성향 .77 이었다.

체계 특성. 한국 사회의 체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Gelpand 외(2011)의 경직성-느슨성(tightness-looseness)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총 6문항(예, 한국에는 준수해야 할 사회적 규범들이 많다, 한국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가에 대한 매우 분명한 기대가 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규범들을 따른다) 이며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4였다.

권위주의성향.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경환(1989)의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는 본래 9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인 대인관계와 관련된다고 판단한 권위주의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 권위주의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반내성주의(anti-introspection),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power and toughness), 파괴주의와 냉소주의(destructiveness and cynicism)의 5개 영역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권위주의적 복종은 자기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이상화 된 도덕적 권위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려는 성향으로 연장자에 대한 복종과 존경, 다수의 의사에 동조하는 의식과 관계된다. 권위주의적 공격성은 인습적인 가치를 어긴 사람을 저주하고 처벌하려는 성향으로 전통문화의 가치관 존중, 처벌제도 등과 관계된다. 반내성주의는 자기 내면에 대해 관심 갖기를 거부하는 반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으로 객관적이고, 성취 및 성과 지향적인 태도와 관계된다.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은 지배와 복종, 강하고 약함,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에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려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려는 성향과 관계된다. 파괴주의와 냉소주의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적의와 멸시를 품고 있는 성향으로 타인에 대한 경계의식이나 불신하는 태도와 관계된다. 각 하위 영역별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권위주의적 복종 .68, 권위주의적 공격성 .73, 반내성주의 .76,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58,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64이었다.

억울 경험과정 설문 문항

근거이론의 인과적 조건을 토대로 6개의 주관적 부당성인식 문항과 개인의 억울 경험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총 10개의 문항을 억울 경험 과정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선택형 문항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그 일은 불공정한 일이다.
- ② 그 일은 불공평한 일이다.
- ③ 그 일은 받아들일만한 일이다
- ④ 그 일은 나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었다.
- ⑤ 그 일은 나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주었다.
- ⑥ 그 일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 ⑦ 그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선택형)
- ⑧ 당신은 그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 ⑨ 그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선택형)
- ⑩ 당신은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결 과

억울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억울 척도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14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3과 같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축분해(Principal axis method)의 직접 오블리민(Oblimin) 회전을 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인 요인이 2개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40 이상의 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을 사용하고 자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검토

표 3. 억울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n=119)

문항	M(SD)	요인1 자기 피해적	요인2 자기 피동적
1.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가 한 일로 여겨질 때 억울하다.	5.65 (.99)	.82	
2. 내 책임이 아닌 일을 감당해야할 때 억울하다.	5.45 (1.19)	.77	
3. 타인으로 인해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당할 때 억울하다.	5.56 (1.18)	.86	
4.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의 의도가 곡해될 때 억울하다.	5.58 (1.00)	.59	
5.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억울하다.	5.45 (1.27)		.50
6. 다른 사람이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 억울하다.	5.41 (1.27)		.65
7.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억울하다.	5.34 (1.39)		.52
8.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	5.87 (1.09)	.72	
9. 동일한 상황에서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억울하다.	5.55 (1.18)	.76	
10. 어쩌다 한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억울하다.	5.08 (1.16)		.47
11. 부조리한 상황을 볼 때 억울하다.	5.23 (1.28)		.55
12.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일이 생길 때 억울하다.	5.07 (1.38)		.77
13. 차별대우를 받을 때 억울하다.	5.66 (1.14)	.33	.52
14. 나의 노력이나 의견이 무시당할 때 억울하다.	5.53 (1.09)		.58
고유값(eigen value)		7.44	1.23
설명분산(%)		53.13	8.76
누적분산(%)		53.13	61.89
문항 수		6	8
신뢰도(Cronbach's α)		.91	.87
전체 문항 신뢰도(Cronbach's α)		.93	

주 1) 구조 계수 .30 미만은 생략함

한 결과 모든 문항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최종적으로 2개요인 14개 문항으로 억울을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요인 1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가 한일로 여겨질 때', '내 책임이 아닌 일을 감당해야할 때', '타인으로 인해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등의 문항들로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유무형의 자산, 예를 들면 자신의 권리나 가치, 물질적 재산 등에 손실을 당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여기는 특징을 보여 '자기 피해적' 억울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 '부조리한 상황을 볼 때', '나의 노력이나 의견이 무시당할 때' 등의 문항들로 자신이

경험하는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나 행동을 당하고 있어야하는 상황을 억울하다고 여기는 특징을 보여 '자기 피동적' 억울로 명명하였다.

문화적 변인과 억울 간의 관계

전체 변인의 특성 및 억울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문화적 자기관에서는 대상성 자기를 제외한 주체성 자기($r=.19$, $p<.05$)와 자율성 자기($r=.25$, $p<.01$)가 억울과 정적

인 상관이 있었고, 주체성 자기($r=.20$, $p<.05$)는 '자기 피동적' 억울과 자율성 자기($r=.30$, $p<.01$)는 '자기 피해적' 억울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 자기관에 따라 관련된 억울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성향은 개인주의($r=.28$, $p<.01$)와 집단주의($r=.43$, $p<.01$) 모두 억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슨한-경직된 체계특성($r=.47$, $p<.01$)도 억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 성향 중에는 반내성주의가 억울 전체 평균($r=-.21$, $p<.05$)과 부적인 상관을 보여 억울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자기 피해적' 억울($r=-.27$, $p<.01$)에

표 4.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119)

	M(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4.57(.91)	1													
2	5.02(.95)	-.38**	1												
3	3.92(.96)	.22*	.07	1											
4	5.03(.67)	.19*	.16	.11	1										
5	4.52(.69)	.44**	-.17	.63**	.15	1									
6	5.13(.65)	.12	.15	.34**	.40**	.22*	1								
7	3.61(1.04)	.12	.28**	-.04	.28**	.09	-.01	1							
8	3.69(1.12)	.15	.18*	.07	.30**	.19*	-.03	.66**	1						
9	3.37(1.14)	.07	.16	-.08	.16	.09	-.20*	.63**	.62**	1					
10	3.49(1.14)	.26**	.22*	.06	.11	.18	-.04	.65**	.63**	.67**	1				
11	3.98(.92)	.03	.30**	.15	.16	.12	.22	.59**	.54**	.57**	.66**	1			
12	5.61(.93)	.14	-.03	.30**	.29**	.25**	.49**	-.07	-.02	-.27**	-.04	.11	1		
13	5.35(.91)	.20*	-.11	.17	.49**	.27**	.40**	.02	.07	-.13	-.06	.09	.74**	1	
14	5.46(.86)	.19*	-.08	.25**	.43**	.28**	.47**	-.02	.03	-.21*	-.06	.11	.91**	.95**	1

주 1) 1. 주체성 자기, 2. 대상성 자기, 3. 자율성 자기, 4. 집단주의 가치, 5. 개인주의 가치, 6. 느슨한-경직된 체계, 7. 권위복종, 8. 권위공격성, 9. 반내성주의, 10. 권력믿음, 11. 파괴냉소주의, 12. 자기 피해적 억울, 13. 자기 피동적 억울, 14. 억울 전체

주 2) * $p<.05$, ** $p<.01$

서만 부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억울 수준 고저 집단에 대한 문화적 변인의 영향력

문화적 변인들이 억울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개인이 경험한 억울 수준을 상·하위 30%를 기준으로 고저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억울 고저 집단을 변별하는 경우

의 분류 정확도로 억울 경험수준이 낮은 집단에 소속된 34명 중 28명이 제대로 분류되었고, 억울 경험수준이 높은 집단에 소속된 38명 중 31명이 제대로 분류되어 전체 분류 정확도는 81.9%로 나타났다.

또한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1개의 문화적 변인들 중 집단주의 가치관, 반내성주의, 파괴냉소주의가 억울 경험수준을 구분하는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독립변수들의 점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집단주

표 5. 억울 수준 저집단과 고집단의 분류 정확도

종속변인	관측치	예측치			분류정확도(%)
		저	고	전체	
억울 수준	억울 수준 저 (n=34)	28	6	34	82.4
	억울 수준 고 (n=38)	7	31	38	81.6
	전체 (n=72)	35	38		81.9

-2LL=49.94,
 $\chi^2=49.65(df=11, p<.001)$, Nagelkerke $R^2= .67$

표 6. 억울 수준 저집단과 고집단 간 로지스틱 회귀분석(n=72)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주체성 자기관	-.177	.595	.088	1	.766	.838
대상성 자기관	-1.028	.563	3.332	1	(.068)	(.358)
자율성 자기관	-.942	.652	2.085	1	.149	.390
집단주의 가치관	2.726	.963	8.015	1	.005	15.278
개인주의 가치관	.467	.880	.282	1	.595	1.595
느슨한-경직된 사회체계	1.370	.808	2.877	1	(.090)	(3.936)
권위 복종	-.901	.633	2.021	1	.155	.406
권위 공격성	.334	.555	.362	1	.547	1.396
반내성주의	-1.204	.600	4.025	1	.045	.300
권력 믿음	-.721	.734	.966	1	.326	.486
파괴냉소주의	2.693	.966	7.775	1	.005	14.771

의 가치성향 수준이 1점 더 높은 사람은 억울을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낮게 경험할 가능성에 비해 15배가 증가한다고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파괴냉소주의도 억울을 높게 경험할 가능성을 1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억울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권위주의 성향 중 반내성주의의 증가는 억울을 낮게 경험할 것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상성 자기관은 낮은 수준의 억울 경험과 느슨한-경직된 체계특성은 높은 수준의 억울 경험을 경계선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억울 경험과정 검증

억울 경험 설문조사에 사용된 억울의 과정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7과 같다.

부당성 인식 평균은 총 7점 중에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억울한 상황을 주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정서 경험과 행동 방식을 선택형 문항으로 제시하여 측정한 결과 타인 초점형 정서(분노, 화, 적개심, 미움, 배신감 등)를 경험하는 사람은 52명이었고, 자기초점형 정서(당황, 황당함, 우울함, 답답함, 무기력감, 속상함, 절망감 등)를 경험하는 사람은 65명으로 나타나 중복응답이 아닌 경우에는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초점형 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 당시에 경험한 정서의 평균은 6점 이상으로 어떠한 종류의 정서든지 매우 강하게 경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참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회피행동보다는 직/간접적으로라도 타인에게 알리고 표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표 7. 억울 경험과정 기술통계 분석(n=117)

변인		평균/빈도(명)	표준편차/%
부당성 인식 (n=114)	불공정	4.94	1.709
	불공평	4.76	1.662
	수용불가	4.56	1.577
	자존감손상	4.58	1.725
	손해발생	4.21	1.741
	잘못없음	4.78	1.747
정서 경험 (n=117)	타인초점형 정서	52	44.4
	자기초점형 정서	65	55.6
	정서 경험 수준	6.09	1.008
행동 방식 (n=116)	회피행동	39	33.6
	표출행동	77	66.4
억울정도		5.40	1.374

억울 수준 고저 집단에 대한 억울 과정 변인의 영향력

억울 과정 변인들이 억울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억울 경험을 상·하위 30%를 기준으로 고저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억울 고저 집단을 변별하는 경우의 분류 정확도로 억울 경험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소속된 58명 중 45명이 제대로 분류 되었고, 억울 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소속된 56명 중 45명이 제대로 분류되어 전체 분류 정확도는 78.9%로

나타났다.

또한, 표 9와 같이 총 9개의 억울 과정변인들 중 불공정, 자존감손상, 정서경험 수준이 억울 경험정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수용불가도 경계선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신이 경험한 일이 불공정하고 자존감에 손상을 주었다고 인식할 경우 부담함을 높게 인식하고,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강할수록 억울을 높게 경험함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겪은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억울 경험 수준

표 8. 억울 수준 저집단과 고집단의 분류 정확도

종속변인	관측치	예측치			분류정확도(%)
		저	고	전체	
억울 수준	억울 수준 저(n=58)	45	13	58	77.6
	억울 수준 고(n=56)	11	45	56	80.4
	전체(n=114)	56	58		78.9

-2LL=102.16,
 $\chi^2=55.84(df=9, p<.001)$, Nagelkerke $R^2= .52$

표 9. 억울 수준 저집단과 고집단 간 로지스틱 회귀분석(n=114)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불공정	.775	.327	5.620	1	.018	2.171
불공평	-.353	.340	1.077	1	.299	.702
수용불가	.369	.208	3.149	1	(.076)	(1.447)
자존감손상	.335	.167	4.005	1	.045	1.398
손해발생	.157	.176	.795	1	.372	1.170
잘못없음	-.123	.172	.507	1	.477	.885
정서 경험 수준	.945	.332	8.123	1	.004	2.573
타인초점형정서 더미	-.350	.522	.450	1	.502	.705
회피행동 더미	-.744	.537	1.918	1	.166	.475

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억울 행동 표출유형(회피/표출)에 따른 문화적 변인의 영향력 차이

억울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이 부당한 일로 인한 분노나 화의 감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의 직접적 표출 유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한 감정의 표현유형(회피/표출)에 따라 문화적 변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 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별로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회피 집단의 공차는 .153~.525, 분산팽창요인(VIF)은 1.903~ 6.557 이었고, 표출 집단의 공차는 .264~.718, 분산팽창요인(VIF)은 1.393~3.794로 나타났다. 공차

값의 경우 모두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회피 집단의 경우에는 느슨한-경직된 체계 특성($\beta=.531$, $t=2.449$, $p<.05$)이 억울함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억울함을 표출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회가 경직되어 있어 지켜야할 규범이나 상황에 맞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존재하므로 이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권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억울함의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더불어 권위 공격성($\beta=.613$, $t=1.918$, $p=.066$)은 경계선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 경직된 사회체계 인식과 유사하게 인습적인 가치를 어기는 것을 처벌하고

표 10. 억울 행동 표출 유형에 따른 문화적 변인의 영향력 (n=116)

	회피집단 (n=39)				표출집단 (n=77)			
	B	SE B	β	t	B	SE B	β	t
주체성 자기관	-.006	.192	-.005	-.032	-.007	.125	-.008	-.056
대상성 자기관	-.240	.151	-.286	-1.597	-.115	.115	-.125	-.999
자율성 자기관	.030	.169	.035	.175	-.018	.128	-.019	-.137
집단주의 가치관	-.100	.302	-.081	-.333	.574	.146	.448	3.939***
개인주의 가치관	-.027	.225	-.026	-.120	.169	.194	.122	.872
느슨한-경직된 사회체계	.727	.297	.531	2.449*	.135	.160	.104	.844
권위 복종	.096	.188	.122	.512	-.008	.132	-.009	-.057
권위 공격성	.433	.226	.613	1.918+	-.047	.110	-.060	-.428
반내성주의	-.238	.163	-.340	-1.457	-.350	.118	-.454	-2.974**
권력 믿음	-.255	.222	-.330	-1.147	.047	.138	.063	.338
파괴냉소주의	.030	.200	.033	.151	.279	.152	.301	1.836+
$R^2=.580$, $Adj R^2=.408$, $F=3.384^{**}$					$R^2=.397$, $Adj R^2=.295$, $F=3.897^{***}$			

* $p<.05$, ** $p<.01$, *** $p<.001$

전통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등의 규율의식이 엄격한 것이 억울함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표출 집단은 집단주의 가치관($\beta=.448$, $t=3.939$, $p<.001$)이 억울함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억울함을 표출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고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타인과 협동하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억울함의 증가를 설명해주는 요인이었다. 더불어 파괴냉소주의($\beta=.301$, $t=1.836$, $p=.071$)는 경계선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 타인을 경계하고 불신하거나 타인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함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표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보다 외부적인 평가를 중시하고 성과 및 성취 지향적인 특성인 반내성주의($\beta=-.454$, $t=-2.974$, $p<.01$)가 억울함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2 논의

억울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억울이 ‘자기 피해적’ 억울과 ‘자기 피동적’ 억울이라는 두 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됨을 확인되었다. 자신에게 닥친 일에서 주관적인 손실을 인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 피해적’ 억울은 자율성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반면, 자신에게 닥친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발생하는 ‘자기 피동적’ 억울은 주체성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동안 모호하게 일 반화하고 있던 억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

는 결과로 한국인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입장을 억울하다고 묘사하는 것을 단순히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억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렵게 할 수 있다.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한국인의 경우 주체성 자기가 높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한민 외, 2009)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서 통제감을 상실하는 경험 이 한국인에게 억울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 변인들이 억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반내성주의가 강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보다 외부적인 평가를 중시하고 성과 및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은 억울 경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신을 사회적인 영향력을 수용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성 자기관도 억울함을 낮게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집단주의 가치관과 파괴냉소주의는 높은 수준의 억울 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인식하고 집단 내 구성원간의 협동과 조화를 중요시하거나 타인에 대한 경계의식이나 불신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억울을 높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가 경직되어 있어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억울을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억울의 과정적 변인들 중 불공정성과 자존감 손상으로 인한 부당성 인식이 억울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특정한 사건이 불공정하고 그 일이 자신의 가치감에 손상을 준다고 판단될 때 부당하다고 여기며 억울함을 높게 경험한다. 또한 억울한 일로 인해 유발된 당황스러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가 강한 것도 높은 억울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참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직/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유형 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회피한 집단의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한국사회가 경직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설명되며, 표출한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집단의 조화와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가치로 설명되어 개인의 행동 방식에 따라 억울을 경험하는 과정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억울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억울의 경험구조와 맥락, 심리적 의미를 확인하였고, 실증적으로 억울 경험의 의미 및 맥락과의 관련이 예상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억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억울은 자신이 당한 부당한 피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경험되는 정서이다. 이때 자신이 당한 피해는 자기 스스로에게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억울한 정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태도에 의해 더욱 커진다. 억울의 정서는 우선, 억울함을 느끼게 만든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손상을 외부 요인(타인, 상황 등)인 가해자의 내적 의도에 귀인 시키면서 그 의도가 부당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분노(anger) 정서를 경험한다(Averill, 1983). 이러한 경우는 한국인들이 억울을 경험하는 상황과 일치하며, 따라서 억울을 분노와 유사한 정서 상태로 유추할 수 있지만, 억울함의 정서에는 분노 이외의 다양한 부정적 정서들이 연합되어 있

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들은 정서의 표현 방향에 따라 자기초점적 정서(당황스러움/어이없음, 답답함, 괴로움, 절망감, 짜증남, 우울감/무기력함)와 타인초점적 정서(분노/화, 억울함, 적개심, 서운함, 배신감, 미움)로 구분되었다. 억울 경험에서 나타나는 정서의 이러한 복합적 성격은 분노(anger)와 한국어의 '화'의 차이를 설명한 최상진의 논의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상진(2000)은 '화'와 'anger'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anger'가 대상지향적인 개념으로 타인에 대한 비난의 느낌(other blame)이 강한 반면, '화'는 대상이 뚜렷하게 존재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느껴지는 것(other blame and self blame)이라 하였다. 억울함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상황 자체에 대한 불쾌의 감정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피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마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억울함의 정서를 분노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상대방과 상황,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맥락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서운함이나 배신감처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억울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의 역사성이나 상대방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관계적 정서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당함의 인식에서 오는 분노는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분노에 연합되어 있는 자책과 절망감 같은 자기초점적 정서나 배신감이나 서운함 같은 관계적 정서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문화적 정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복합적 정서는 해소 행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기 쉬운데, 한국의 문화적

증후군으로 손꼽히는 화병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정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유교적 가부장적 전통과 관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의 개인적 표현을 강하게 금기시하는 정서표현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고 조절해야만 하는 상황을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다. 정서표현 억제는 정서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정서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표현을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Gross & Levenson, 1993, 1997), 개인의 안녕감(Gross, 1998a; Gross & John, 2003) 및 사회적 관계(Butler et al, 2003), 심장질환 같은 개인의 신체적 문제(Friedman & Booth-Kewley, 1987; Gross & Levenson, 1993)등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부터 신체적 측면 까지 부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억울함을 화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정신의학계의 논의들(민성길 외, 1998; 이시형, 1977; 이시형 외, 1989)은 억울의 정서억제적 측면을 뒷받침한다. 즉, 한국인들은 직접적인 정서표현이 규제되는 문화적 속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르는 부정적 정서들을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억제하거나 ‘억울’이라는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관계를 해칠 위험성이 큰 분노 정서는 억제하려는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병리적인 현상으로까지 발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억울은 정서의 억제로 인한 심리 경험인가? 단지 부당한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분노와 그 분노를 외부로 표출할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 같은 정서가 뒤섞인 상태를 억울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억울한 당시의 행동을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참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응답 외에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시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등, 억울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표현행위는 억울의 표현에 있어 억제 외의 다른 맥락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신문고와 같은 억울 토로의 방법이 예로부터 있어왔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는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문화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경험에 대한 표출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고 싶은 욕구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물론 억울함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 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즉, 반응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문화적으로는 바람직한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런 만큼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억울함을 드러내려는 동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이러한 문화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는 한국인들의 자살원인 중 하나가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유형의 자살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어 해소할 방법이 없을 때 한국인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표출방식인 것이다.

사회에서 용인된 규범(정서표현규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출하고자하는 동기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기관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권에 속함에도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의 방향에 따라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경우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인들이 후자의 대상성 자기가 발달한 것에 비해 한국인들은 전자의 주체성 자기가 발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이누미야 외, 2006; 한민 외, 2009). 주체성 자기가 발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자기인식의 준거가 내부(소원, 이상 등)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자신의 외부에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난다(이누미야, 2009).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보면 주체성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인식의 동기가 제한되는 상황을 접할 때 이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이 입은 손해를 실제보다 크게 지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억제하기보다는 외부로 알려 손상된 가치나 자신이 믿는 진실을 회복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억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에서 잘 드러나는데 억울이 해소되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로의 오해가 풀리거나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한 일이 사라지는 경우 또는 억울을 유발했던 상황 자체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종료됨으로써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거나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억울은 가급적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제3자에게라도 토로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 한국인들에게 있어 억울은 정서표현 규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맥락에 존재하는 정서로 보인다. 이것은 개인에게 닥친 일을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원인에 사건의 불공정성만이 아니라 자존감의 손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불공정하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 판단되는 객관적인 개념이지만 자존감의 손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부당함이며, 관계지향적인 문화에서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자기 가치의 인정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억울은 역사적 사료에서도 드러나는 개념으로 편년자료에서만 살펴보다라도 ‘고려사절요’에는 38건, ‘조선왕조실록’에는 5816건, ‘승정원일기’에도 5159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¹⁾. 대개가 ‘○○○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다시 심의하게 하였다’ 내지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없게 하기 위해 재심이나 사면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왕조는 초기인 태종 1년(1401년)에는 이미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이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고 제도까지 마련하였다. 이처럼 억울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한국인의 마음과 행동을 묘사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나는 억울하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불공정한 피해가 아닐 수 있고, 분노의 억제 보다는 표출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성이 높을 수 있음을 구별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고 진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억울을 경험하는 상황과 표출되는 정서의 종류와 성격, 이어지는 행위양식에 이르기까지 억울을 경험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여 억울의 경험 구

1) 국사편찬위원회가 마련한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 억울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직접적으로 억울(抑鬱)을 사용한 구절과 억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함께 검색된다.

조와 특성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함으로써 억울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료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 연령대를 폭넓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생각된다. 연령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억울 경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정은 (2001). 관계적 정서와 문화적 정서: 정서의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89-407.
- 김효창 (2010). 자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65-178.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146-168.
- 민성길 (1989). 화병의 개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4), 604-616.
- 민성길 (2009). 화병의 이해와 미술치료. *임상 미술치료학연구*, 4(2), 61-67.
- 민성길, 김경희 (1998). 화병의 증상. *신경정신의학*, 37(6), 1138-1145.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9).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115-146.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 민, 이주희, 이다인,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7-34.
- 이시형 (1977). 화병에 대한 연구. *고의*, 1(2), 63-69.
- 이시형, 조소연, 이성희 (1989). 울화병으로서의 화병 형성기전. *고의*, 12, 151-156.
- 조홍건 (1991). 스트레스병과 화병의 한방치료. 서울: 열린책들.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이요행 (1995). 한국인 화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327-338.
- 한 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139-159.
- Alexander, F. G. (1939). Emotional factors in essential hypertension: Presentation of a tentative hypothesis. *Psychosomatic Medicine*, 1, 175-179.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45-1160.
- Butler, E. A., Egloff, B., Wilhelm, F. H., Smith, N. C., Erickson, E. A., & Gross, J. J. (2003). The social consequences of expressive suppression. *Emotion*, 3, 48-67.
- Friedman, H. S., & Booth-Kewley, S. (1987). Personality,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heart disease: The role of emotional

- ex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83-792.
- Funkenstein, D. H., King, S. H., & Drolette, M. (1954). The direction of anger during a laboratory stress-inducing situation. *Psychosomatic Medicine*, 16, 404-413.
- Gelfand, M. J., Raver, J. L., Nishii, L., Leslie, L. M., Lun, J., Lim, B. C., ... Yamaguchi, S. (2011). Differences between tight and loose cultures: A 33-nation study. *Science*, 332, 1100-1104.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 Gross, J. J. (1998a). Antecedent 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24-237.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0-986.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tayama, S., & Markus, H. M. (1994).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kus, H.,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18-48). New York: Springer.
- Mauro, R., Sato, K., & Tucker, J. (1992). The role of appraisal in human emotions: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301-317.
- Mesquita, B., & Frijda, N. H. (1992). Cultural variation in emotion: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2, 170-204.
- Pelto, P. J. (1968). The differences between "tight" and "loose" societies. *Trans-action*, 5, 37-40.
- Russell, J. A. (1991). Culture and categorizations of emo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0, 426-450.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pielberger, C. D., Crane, R. S., Kearns, W. D., Pellegrin, K. L., & Rickman, R. L. (1991). Anger and anxiety in essential hypertension. In C. D. Spielberger & I. G. Sarason (Eds.), *Stress and emotion* (Vol. 14: pp. 266-283). New York: Hemisphere/Taylor & Francis.
- Strauss, A.,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 2nd Edition. Sage, Newbury Park, London.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Eds.),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41-133).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ierzbicka, A. (1994). Emotion, language, and cultural scripts. In S. Kitayama & H. R.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pp.133-19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논문 투고일 : 2016. 10. 18
1 차 심사일 : 2016. 10. 20
게재 확정일 : 2016. 11. 29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Eogul'

Shinhwa Suh

Korea University

Taekyun Hur

Min Han

Woos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discover the meaning of the Eogul(억울) which is known as a emotion from perceived unfairness. Even though Eogul has been mentioned as a cause of the Hwabyung in Korean culture there were few studies about it. Researchers designed two studies to provide clear understanding for this concept. In study 1, researchers conducted an open-ended questionnaire for 44 participants to deduce the cultural contexts and the whole experience on Eogul. Data were analyzed with grounded theory, the results were cross-checked by different evalua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Eogul is not only the negative feelings from the perceived unfairness, but also the motivations and behaviors to resolve the feelings. Especially, what makes Eogul culture-bounded could be related display rules on expressing emotions. We conducted study 2 to clarify the cultural attributes of Eogul in Korean culture. Variables that explain cultural differences were chosen and 123 participants were surveyed with them including the items developed for measuring Eogul. Cultural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Eogul were discussed with the results.

Key words : Eogul(억울), grounded-theory, cultural self-construals, individualism-collectivism, looseness-tightness, authoritarian personality.